

목어 자비와 회향



초기불교의 가르침은 매우 이지적이
라 말할 수 있다. 현상을 세밀하게 분석
하고 그 속에서 논리적 모순을 찾아내
어 스스로 깨우치게 만들어 주기 때문
이다. 그런 점에서 중요한 것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인과론이다. 인과론에 의거하
여 인도사회의 고질적 사회악인 계급 모순을 비판했다. 분
만 아니라 행위에 따라 고귀한 사람도 천박한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은 우리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

며칠 전 몇몇 지인들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함께 한 적이
있다. 그 자리에는 경기도청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는
데, 그는 연말연시나 국경일에 경기도 관내의 불우청소년
또는 아동복지시설을 위문하는 것이 가장 보람찬 일 중의
하나라 고백했다. 그의 이야기에 의하면 경기도 관내의
복지시설은 약 110여개 정도이며, 이 가운데서 불교계가
운영하는 곳은 3곳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 외에는 대부분
기독교나 천주교 계통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소외된 계층
을 위한 그들의 관심과 봉사에 존경심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누군가가 사회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 하는 것은 소중한
일이다. 특히 남들이 하지 않는 곳을 일하는 것은 존경
받을 일이다. 그러면서도 가슴 환한이 허전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불교계의 현실을 느끼기 때문은 아닐까? 다종
교 사회에서 불교의 사회적 의의는 무엇인가? 불교적 가
치를 말하기 전에 사회의 아픔을 공유하는 자세를 보여주
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필자도 불교를 가르치는 사람
이지만 대다수의 한국 불교도들이 추구하는 깨달음의 세
계는 진정한 불교의 가르침을 호도할 정도로 관념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도 자신이
설정된 설계도면 안으로 교수의 강의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는 별로 신봉할은 학자가 되어 버리기 일췌다.

진정한 가르침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회와 이웃을 바
라보면서 자신의 작은 공덕이나 회향하려는 마음이 아
닌가 반성해볼 일이다.

차차석(동국대 강사)

불자의 생각

종교와 결혼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에
있어 종교는 어떤 의미일까?
붓다뉴스가 17일부터 23일까
지 '종교와 결혼'을 묻는 설문조
사에서는 종교가 결혼의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는 결론을 보



“부부간 종교 같아야” 87%

였다. 224명이 참여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1%(160명)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것. 8%(19명)는 중요하지 않다고, 20%(45명)
는 반반이라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40%(91명)는 부부라면 반
드시 종교가 같아야 한다는 데 동의 했고 47%(107명)가 가급
적이면 같아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결혼을 위해 개종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211명(94%)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임연태 기자

육식 줄이는 것도 불살생의 길

불자 세상보기

구한말 개화기나 50~60년대 자료
에서 빛바랜 흑백사진을 볼 때마다 느
끼는 것이 하나 있다. 그 때 사람들은
노스 없이 영혼이 깊어 보인다는 점이다.
눈이 선하다고 할까. 그에 비해 요
즘 사람들 얼굴은 어떤가? 부티가
나고 여유도 있다. 그러나 눈에는 회가
진득 들어있다.

현대인들은 옛날에 비해 많이 알고
많이 즐긴다. 하지만 아는 만큼 더 바
쁘고 더 쫓긴다. 그리고 가진 만큼 부
족하고 불안하다. 그 사이 자신도 모
르게 눈동자는 민첩해지고 표정은 일
그러진다.

옛날 사람들과 현대인들의 표정 차
이에 대한 색다른 분석이 있다. 식생
황의 차이라는 것이다. 육식을 많이
한 현대인들의 눈빛이 점점 맹금류를
달려간다는 분석인데 듣고 보면 그럴

듯 하다. 초식동물은 눈이 순하고 평
화로운데 비해 육식동물은 호시탐탐
공격의 기회를 노리는 것처럼 사람도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 성격과 눈빛
이 난폭하게 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이론이다.

인스턴트식품과 육식이 몸 뿐 아니
라 성격형성에도 영향을 준다는 이론
은 환경론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정설
로 굳어가고 있다. 그래서 은근과 근
기가 특장인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다혈질이 됐고 모두가 조금쯤에 걸렸
다고 한다. 수업시간에 제멋대로 들
어다니고 소리를 질러대는 교실과피
현상도 도덕의 붕괴된 탓할 게 아니
라 식생활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것
도 눈길을 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육식을 얼마나 하

단백질 위주 식단 늘어

스테이크 한끼 먹는동안

농촌의 시름은 깊어지고

고 있는가? 우리 국민의 지방 섭취량
은 1980년대 이전부터 조금씩 증가
하다가 80년대 후반부터는 폭발적으
로 증가했다. 따라서 곡물로부터 섭
취하는 칼로리가 1970년대에 82.1%
에서 1990년대에는 65.8%로 줄어들
었다. 이는 당질위주의 식단이 점차
단백질 위주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
다. 명절 때만 겨우 맛볼 수 있었던 쇠
고기를 먹기 위해 1년에 39만 톤
(2000년 기준)을 수입하는 형편이니
알만하지 않은가. 그 결과는 질병의
변화로 나타났다. 1970년을 기준으
로 감염성, 전염성 질환이 현저히 줄
고 과제중이 원인이 되는 성인병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쌀 생산량은 526
만 톤으로 대풍이었다. 그런데 농민들
은 대풍이 되레 우환이었다. 우리나라
쌀 소비는 연간 513만 톤, 약 13만 톤
이 남는데다 재고량이 105만 톤이나
되니 남아도는 쌀 때문에 골머리가 아
프기 때문이다. 70년대 대도시의 1인
당 쌀 소비가 연간 147.6kg이던 것이
최근에는 89.2kg으로 줄어든 것에서
알다시피 식생활의 변화가 농민들
에게 시름을 보태준 셈이다.

우리가 사먹는 쇠고기가 소말리아
등 제3세계 사람들의 굶주림과 무관치
않다면 그 또한 ऐसा 일이다. 그
데커니즘은 이렇다. 비육우 1kg을 생
산하기 위해 16kg의 곡물을 먹어야 한
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 등지에서 비육
우로 사육되는 소 12억8천만두가 먹
어 치우는 곡물이 연간 3억2천만 톤.
이 곡물이면 지금 지구촌의 기아인구
10억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한다.



김재성 대한매일 논설위원

가 별채된다면 후진국의 가뭄과 흉수
가 어찌 그 나라만의 사정일까.

폐인하고, 우리가 맛있는 비스프
테이크 한 끼를 즐기는 동안 우리 농
촌의 시름이 더 해 가고 지구촌 어디
에선가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불살생’을 소
승적으로 강요할 필요는 없다. 다만
불자들이 육식을 조금 줄이는 것만으
로도 우리 농촌의 시름을 덜 수 있고
소말리아에서 굶어죽는 사람이 얼마
간 줄어든다면 그 자체로 불살생의 도
가 아닐까.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위탁보관 불교문화재 반환

조계종 문화부는 3월 착공되는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의 불교중앙박물관에 전시할 불교문화재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말 전국 100여 개 박물관과 문화재 관련 단
체에 ‘사찰소유 위탁 불교문화재 목록’을 파악해 달라

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중 회신을 받은 곳은 지금
까지 10여 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대부분의 박물관들은
문화재 수탁 여부 확인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
문화부와 박물관들의 입장을 들어본다.

조계종 문화부 입장

“위탁 정보 자료 확보 급선무”

위탁 성보문화재는 당연히 해당사
찰에 환원되어야 한다는 것이 총무원
의 기본원칙이다.

현재 96년 작성한 타 기관 위탁 성
보문화재 를 토대로 각 사찰의 위탁
문화재에 대한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파악된 ‘국가 위탁 관리 사
찰 소유 지정문화재’는 200여점 정도
다. 충분한 자료조사 후 사찰 소유 문
화재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먼저 각 박물관에 대화와 공문을 통
한 유물 반환을 촉구할 예정이다. 빈
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
다. 사찰과 박물관 모두 위탁, 수탁증
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사찰
은 위탁증을 가지고 있지만 박물관
에서 수탁사실을 부인하거나 해당
문화재의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세
번째로 사찰이 위탁과 관련한 서류

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거나 위탁증
을 쓰지 않은 경우이다. 각각의 경우
에 대해 법률 자문을 얻어 대응할 방
침이다.

조계종의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찰의 소유자 스님이 바뀌는 과정에
서 위탁증을 분실한 경우다. 이 경우
박물관에서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찾아
들려 받을 계획이다.

박물관측 의견

“해당사찰 정당요구면 반환”

○ 사찰위탁문화재 목록에 대한
회신은 보냈다. 해당 문화재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
하지만 문화재는 국민 문화유산인 만큼
위탁증이나 법적 근거가 없는 소유
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 신광섭(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장)
○ 현재 조계종이 박물관 소유라
고 주장하고 있는 ‘백룡사금동여래입
상(국보 28호)’은 국가 소유의 문화재

이다.
○ ‘위지급니묘법연화경(보물 314호)’
과 ‘백지축서묘법연화경(보물 315
호)’은 안동 공흥사가 기탁한 문화재
로, 사찰에서 반환을 원한다면 귀속
가능하다.

○ 박물관(경주박물관 학예연구관)
○ 사찰에서 보관상의 이유로 박
물관에 기탁한 문화재에 대한 내용을
담은 회신 공문을 조계종 측에 보냈

다. 해당 사찰에서 반환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되돌려 줘야 한다.

○ 박진우(진주박물관 연구사)
○ 전주박물관의 사찰 기탁문화
재는 ‘내소사 소장 법화경 절본 사본’
외에 10여점이 있다. 사찰의 안전문제
나 박물관의 전시목적으로 기탁된 문
화재는 사찰에서 반환을 요구할 경우
돌려줄 것이다.

김규동(전주박물관 학예사)

전문가제언

문명대



시되었을 때
그대로 이어
졌는데, 사찰
주지 스님의
부지가 이를
방조하기도
했다. 뿐만 아
니라 성보문화재 도난이 문해사유
가 되었을 때나 문화재에 대한 인식
이 부실했던 주지 스님의 경우 지진
해서 박물관에 위탁 보관해 줄 것을
간곡히 사정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재가 반강제적으로 박물관에
이관했던 경우 당시 도둑이나 신문
등 여러 문헌에서 사찰문화재였던
증거를 찾아내 분명히 제시한다
면 박물관도 이를 부정할 수 없을 것
이다. 그러나 수십 년, 길게는 100여
년 간 박물관에 전시되어 왔기 때문
에 반영구적인 박물관 유물이 되었
으므로 종단에서도 당해 박물관에
일정한 전시권 정도는 인정하지 않
을 수 없을 것이다.

“종단-박물관 교차전시 등 신중한 조율”

서로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도 다소
의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보관했던
박물관 관계자가 이를 부인할 경우
복잡해질 가능성은 있지만 여러 가
지 증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결국 해
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문제되는 것은 보관
증을 분실했거나 아예 보관증을 작
성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경우이다.
가령 일제 때는 일제가 반강제적으
로 사찰문화재를 박물관으로 이관
했던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관행
은 6.25 전후에도 국가권력이 중요

파라서 서로 양보해서 소유권은
종단이 가지되 일정기간 종단 박물관
과 보관 박물관이 교차 전시하는
방안 등을 신중히 강구할 필요가 있
지 않을까 한다. 또한 사찰이 사정해
서 보관을 의뢰했던 경우, 고마움을
표하는 뜻에서 위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종단이나 각 박물관은 서
로 지혜를 발휘해서 묘안을 낸다면
소송 없이 이 난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동국대 미술학과 교수)

“자비의 등 지혜의 등” - 손 불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아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연등의 종류별 모델링 등이 있습니다. * 각 사찰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 (만월등)

시공인연등용 전선 케이블 ▼



만월등



● 종 소리는 차의 종성만 구별되고
연과 고명용 연수계 연과 고명,
및 사찰연은 조망할 신해 종등 용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뜻을 간직하고 신대연등제작
행하는 '부처님오신날' 각종 범종 및
행사 때 장엄 장식할 수 있는 신제품
종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종등 보관상태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031) 792-6288, 794-4055
전덕 홈페이지: www.chanduk.com
경기도 아산시 준공동 180-1 e-mail: chanduk21@hanmail.net